

7월 호우피해 자체 특별지원

도, 시설하우스 침수 피해 1000여 농가 대상 하우스 동당 60만원 · 농가당 최대 300만원

전북도는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19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가 큰 시설하우스 농가에 대한 도 자체 특별지원 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이번 집중호우는 지역별 장마철 일 강수량 역대 1위를 기록한 전국 22곳 중 7곳(32%)이 전북지역일 정도로 호우가 집중됐으며, 도내 평균 410mm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농경지 2만 8천ha에서 벼, 콩, 시설원에 작물 등이 침수되고, 익산지역 하우스는 1~2m

깊이로 3~4일간 침수되어 농작물 및 농기자재 피해가 심각했다.

정부에서는 대과대 및 입식비 상향, 특별위로금 도입 등 피해농가의 지원을 확대해, 재난지원금으로 281억원, 특별위로금으로 140억원을 지급했으나 시설하우스 농가의 경우 장기간의 침수로 인해 농작물은 물론 농기자재까지 피해를 입는 이종고로 영농재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관심지원이 절실했다

이에 전북도는 호우피해를 입은 시설하우스 농가를 대상으로 피해 농작물·농기자재 철거 및 재입식을 위한 소요 인력비를 시설하우스 동당 60만원, 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국가재난관리시스템 데이터를 분석해 추석 직후 지원할 계획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 7월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를 위해 각계각층의 손길이 모여 복구에 최선을 다했으나, 영농정상화를 위해서는 더 많은 인력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며,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가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26일 김관영 도지사가 추석 명절을 맞아 남부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펼치는 등 지역 상권 활성화 캠페인을 갖고 물건을 구입하며 상인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민생 살리는 첫 시작, 지역화폐 국비지원 복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정부 지역화폐 예산 삭감 비판

진보당 강성희 의원(전주)이 정부의 지역 화폐 예산 삭감을 비판하고 전액 국비지원 복원을 주장하고 나섰다.

올해 4월 치러진 재선거 당선 후

수 개월만에 전북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나온 것으로 내년 총선을 앞둔 당 차원의 맞춤형 민심 전략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강 의원은 26일 전북도의회 브리

핑실에서 서민 경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지역화폐 국비지원을 첫 민생 살리기 시작으로 삼고 민생포기 정부에 맞서 민생예산을 복원하겠다고 주장했다.

배경에 대해 강 의원은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 절대다수가 2021년 수준인 1조2,522억원 수준으로 국비지원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이 2022년 11월 발표한 지역화폐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10명중 7명 이상이 지역화폐 발행예산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언급했다.

강 의원은 이어 "특히 예산국회에서 국민들이 절실히 원하고 있는 지역화폐 국가지원 예산을 2021년 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전북 정치권과 지자체부터 힘을 모아갈 것을 호소드린다"라며 "민생당은 당론으로 지역화폐 국가지원 예산을 회복시킬 것을 요청드린다. 진보당도 함께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26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삭감을 비판하며, 전액 국비지원 복원을 주장하고 있다.

“한가위 장보기, 전통시장 찾아주시길”

김관영 도지사, 전주 남부시장 찾아 민생경제 상황 점검 · 시장 상인들 애로 청취

김관영 도지사가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펼치는 등 지역 상권 활성화 캠페인을 벌였다.

26일 전주 남부시장을 찾아 주요 성수품 물가동향과 시장 활성화 등 민생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시장 상인들과 일대일 대화를 나누며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특히, 최근 고물가, 고금리, 자연재해 등 연이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전주 남부시장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야시장 청년몰

운영 상황 등을 점검했다.

행사는 남부시장 상인화부터 점포와 노점을 찾아가며 미리 구매한 온누리 상품권으로 1시간여 동안 차례용품 등을 구매하며, 경기침체로 소비심리가 위축됐으며, 영농을 위호하는 등 서민경제 살리기 실천 의지를 전달했다.

아울러, 지난 18일 발표한 추석 명절 민생안정 대책에 포함된 성수품 물가 점검과 소비 촉진 정책과 소상공인 지원시책 안내도 잊지 않고 행했다.

김 지사는 "한가위를 맞아 민생경제가 활력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에 전통시장을 방문했다. 전통시장과 우리 고장 상품을 살려야 전북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며 "상인화와 함께 상인들께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구노력을 펼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장보기 캠페인 시 구매한 물품들은 전주시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명절 위문품으로 기탁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농림어업 세금 감면 적용 기한 3년 연장

민주 안호영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국회 제출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농림어업 관련 세금 감면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농해수위원회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은 "유류비 상승으로 농가 경영비 부담이 폭등하고 있는데, 농림어업 면세유 세금 감면이 올해 말 종료 예정되어 농가들 걱정이 많다"며 "농가 부담 감소를 위해 농림어업 관련 세금 감면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2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세 관련 일몰기한이 연장되는 내용은 △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 △농공단지 입주기업 세금 감면 △영농법인·농업법인 법인세 면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농작업 대행 부가가치세 면제 등이다.

지방세 감면과 관련해서는 △농기계 취득세 면제, △관정시설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등이 포함되었다.

안호영 의원은 "유류비와 사료비로 가격 상승 등으로 농림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농림어업 관련 세금을 감면해 농가 부담을 줄이고,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높여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림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권요안 · 김대중 도의원 새만금 예산 복원 릴레이 단식

전북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과 권요안 의원(완주)이 26일부터 사흘간 도의회 청사 앞 천막 농성장에서 내년도 새만금SOC 예산의 원상 복원을 촉구하는 '도의원 릴레이 단식투쟁'을 이어간다.

김대중 의원은 "전북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상황에서 새만금SOC 예산까지 대폭 삭감돼 도민들의 상심이 커 사발후 단식 투쟁에 나섰다"며 "정부와 여당이 전북도민의 상처받은 마음을 헤아려 부처요구액 원안대로 예산을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요안 의원은 "새만금 잠버리 대회는 국제행사로서 정부 책임하에 치러졌고, 특히 문제가 된 폭우·폭염·위생대비는 조지위 소관이었음에도 정부 여당은 잠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라북도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있을 새만금SOC 예산 복원 도민결의대회와 상경투쟁에 도민들의 큰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 5일부터 도의회 청사 앞에서 2024년 정부예산안에 새만금 SOC사업 예산이 부처요구액 대비 78% 삭감된 것에 대한 항의 사발식을 갖고 릴레이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

/김재훈 기자

‘지금 우리 결의 쓰레기 - 순환경제 개념 · 과제’

남원시의회 탄소중립 그린도시 만들기 연구회 세미나

남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탄소중립 그린도시 만들기 연구회는 지난 26일,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지금 우리 결의 쓰레기 - 순환경제 개념과 과제'라는 주제로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실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연구회 한명숙 대표 의원과 의원들 시 관계 공무원, 시민단체의 사명방 씬임 사회책임연구소, 춘향골 교육공동체 등 외부단체 회원이 함께 참석, 쓰레기 박사로 통하는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의 '쓰레기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세밀하게 짚고, 순환경제,제로 웨이스트, 플라스틱 문제, 실천과

제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내용을 전달했다

대표의원인 한명숙 의원은 "쓰레기 문제는 어느 한 사람의 노력이 아닌 국가, 지자체, 국민 모두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하는 문제로, 실천에 불면이 따르더라도 그감수하고 실행할 때 탄소중립도 제로 웨이스트도 가능한 일이라 생각한다"며, "연구회는 앞으로 관련 조례의 제·개정 및 정책 발굴 등 지속 가능한 남원형 탄소중립 실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안심 산책로 조성 · 3년간 CCTV 5400대 설치’

전북지경위, '전북 자치경찰 범죄예방 종합대책' 발표

도민안전순찰대 신설 · 맞춤형 범죄예방시설 확충 등

이영규 전북도 자치경찰위원회장은 26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치안 환경 조성을 위한 '전북 자치경찰 범죄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발생한 전주 삼천산책로 성범죄 사건, 수도권 흉기 난동 사건 등 연이은 강력범죄에 따른 도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추진했으며,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확대 △도민 참여치안 활성화 △시·군 치안협업 강화 등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경위), 도경찰청, 시·군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선제적 범죄예방 대책을 담고 있다.

먼저 자경위는 시·군과 함께 산책로 등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비상벨 설치 등 '안심 산책로 조성사업'과 '이동형 폐쇄회로티브이(CCTV) 운영 사업' 등 2개 사업을 우선 추진할 예정이며, 시·군과 3년간 폐쇄회로티브이(CCTV) 5,400대 확충 계획에 따라 2024년 1단계인 1,800개소 증설을 위해 예산 확보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지역별 범죄 위험도 등을 분석해 도민이 원하는 지역 맞춤형 사업으로

'도민 중심, 지역 맞춤형 범죄예방' 등 5개 사업도 함께 추진해 도민의 체감 안전도를 끌어올릴 방침이다.

자경위는 (가칭) 자치경찰 도민안전순찰대를 신설해 기존 읍·면·동 중심의 자율방범대와 차별화된 시·군 중심의 순찰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도민안전순찰대는 읍·면·동 자율방범대원 중 참여자를 모집해 관할경찰서와 연계해 지역 이슈 범죄 대응 순찰 및 야간 산책로 집중순찰 등 광역단위 치안 보조역할을 담당하며 내년 상반기 3개 시·군 대상 시범실시를 위해 실무협의 등 제반 사항을 준비하고 있다.

자경위는 9월 14일 현행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의 시·군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군 자치경찰사무 담당부서를 지정했다.

이에 내년도 계획된 폐쇄회로티브이(CCTV) 안내표지판 112 신고위치포기 등 4개 범죄예방 시·군 매칭사업이 한층 더 유기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시·군의 자치경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경위는 삼천 천변 사건 재발

방지 및 모방범죄 예방을 위해 전주시와 보안등 폐쇄회로티브이(CCTV) 등 방범시설 확충을 위한 실무협의를 8월 31일과 9월 8일 두 차례 개최했으며, 9월 1일부터 전북경찰청과 범죄예방 강화구역 15개소, 여성안심귀갓길 130개소 등에 대한 정밀 방범잔란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9월 5일에는 전북경찰청으로부터 이상동거민범죄예방 관련 추진사항을 보고 받고 자치경찰제 취지에 맞는 전북만의 특색 있는 예방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특히,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 중인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앱'이 연내 구축되면 자율방범대도 지금보다 한층 더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영규 자치경찰위원회장은 "이번 범죄예방 종합대책의 핵심은 자경위 등 모든 범죄예방 주체가 함께 하는 선제적 예방을 통해 도민 생활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다"며, "이번 대책으로 도민의 일상이 더 안전하고 행복해질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에 추진하는 대책의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미비한 점을 보완해 변화하는 치안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김재훈 기자

도의회, 의정역량 강화 '지방의회 아카데미' 참석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장과 의원들은 26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주관하는 '지방의회 아카데미'에 참석했다.

지방의회 아카데미는 행정안전부와 대한민국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전라북도의회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지방의회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변화를 이해하고 지방의원의 역할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아카데미에는 전북도의회 의원을 비롯해 전국의 지방의원 80여명이

참가해 전북혁신도시 지방자치인재개발원내 지방의정연수센터에서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방의회 발전방향, 리더십,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주제로 강의를 들었다.

첫 번째 강사로 나선 우동기 지방시대 위원장은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주제로 정부의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전략과 방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이기우 인하에 교수는 "지방의회 발전방향을 주제로 인사권 독립 이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지방의회 조직 편성 및 예산 권한 도입과 관련해 강의했다."

최유근 카툰경영연구소 대표는 '비더십'을 주제로 지방의원의 리더십을 비롯해 현대 사회에 필요한 리더십에 대해 소개했다.

마지막 강사로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지방자치, 지방분권 등을 이루기 위한 지방정부 및 지방의원의 역할에 대해 강의했다."

교육에 앞서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장은 "지방분권, 지방자치가 확대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며 "앞으로 지방의정연수센터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방의회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교육기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